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6호 【루계 제2567호】

주체108 (2019)년 11월 9일 토요일 음력 10월 13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상징이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 단장이 강조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 단장 와짐 꾸지민은 공화국을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주체사상신봉자로서 나는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하였다.

매번 그러하였지만 이번에도 나는 조선의 놀라운 발전모습에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을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고있다.

허나 조선은 모든 도전과 압력을 단호히 물리치며 자기가 선택한 강국건설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고있다.

령토도 크지 않은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과감히 맞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며 세계의 초점을 모으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특유한 관계 다시 말하여 혼연일체에 있다.

조선에서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조선사회의 참모습은 실로 감동적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뜨겁게 흐르는 혈연의 정은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를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조선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더욱 절감하고있다.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의 중심은 바로 김정은동지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받드는 길에 모든것을 바쳐가고있으며 이를 더없는 영예와 긍지로 간주하고있다.

령도자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고 인민은 령도자를 받들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바로 여기에 조선식사회주의의 불패성이 있고 양양한 전도가 있다.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상징이다.

본사기자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해 애국의 피와 땀을 바쳐가려는것은 해외동포들의 마음이고 의지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 백경헌은 자기가 쓴 글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조선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신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대성인이시다.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투쟁의 길에 나서신 그 시절에 벌써 근로하는 인민이 잘살수 있는 사회를 구상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강도 일제를 쳐부시는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류가 오랜 세월 갈망하던 인민이 주인된 나라,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세계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여 조선인민뿐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 계신다.

세계에는 유명한 정치가나 령도자들이 많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같으신 위인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필자는 계속하여 이렇게 썼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민족자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조국은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넘쳐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높이 솟아 빛을 뿌릴것이며 태양의 력사는 줄기차게 흐를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내 조국은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이 찬란히 꽃펴나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게 될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는 조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려 불철주야의 헌신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어 모시고 주체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겠다.

천하제일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의 모든 공민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대외활동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다.

우리는 자기의 성실한 애국의 한마음으로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나라,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대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본사기자

제38차 윤이상음악회 진행

제38차 윤이상음악회가 6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진행되였다.

최홍남 문화성 부상, 예술부문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 교원, 연구사들과 공화국주재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음악회에 출연하였다.

관현악 《내 나라의 푸른 하늘》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윤이상작곡들인 교향시 《화염속의 천사》, 2중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공간》 제1번과 현악4중주 《봄타령을 주제로 한 소품》, 베르디작곡 가극 《운명의 힘》 서곡 등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높은 연주기량과 섬세한 예술적형상으로 곡상에 담겨진 독특한 화성적울림과 주제사상적내용을 잘 살림으로써 관중들에게 깊은 감흥을 주었다.

본사기자

시평 죄악을 덧쌓는 용납 못할 행위

최근 일본에서 조선학교유치반의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일과 같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2일에도 도꾜에서 총련 각급 조직일군들과 각계층 동포들,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여러 단체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적인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였다. 이날 집회에는 나어린 유치반원아들과 유모차를 끌고나온 유치반보호자들도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배움의 권리를 짓밟는 폭거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하면서 《일본정부는 독선적인 차별정책을 철회하고 조선학교유치반을 무상화대상에 즉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하였다.

민족교육을 뿌리채 없애버리고 나아가서 재일동포사회자체를 말살하려는 일본당국의 민족배타주의, 민족말살범죄에 대한 응당한 단죄이고 규탄인것이다.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어린이들로 말하면 과거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온갖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야만 했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이런 천진한 어린이들을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배움의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일본당국의 행위야말로 극도에 이른 민족배타주의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죄많은 나라이다.

과거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어떤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는가 하는것은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징병, 징용으로 끌어갔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삼아 삶을 짓밟은 일본의 죄악은 고금동서에 그 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후 70여년이 된 오늘까지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면서 재침책동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제땅이라고 계속 우겨대고 군사대국화를 위한 책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침을 위해 헌법까지 뜯어고치려 하고있다.

자국내에서 뜻밖의 화재가 발생해도 《재일조선인이 한 일이다.》라는 류언비어를 내돌리고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을 떠나라.》, 《조선사람을 학살하자.》라며 조선인혐오시위가 뻐젓이 벌어지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일본이다.

여기에 더하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계속 벌리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까지 민족적차별의 고통을 강요하고있으니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엄청난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박철남

조국소식

수십종의 제품을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첨단기술제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한 두뇌전, 기술전을 벌려온 교원, 연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발된 수십종의 제품들이 올해에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였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일용화학공학부에서 혼합되지 않는 서로 다른 종류의 파수지를 그대로 재생하여 원료로 리용할수 있는 첨가제를 연구완성하였다.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을 위해 탐구와 노력을 거듭하고있는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 연구사들이 태양빛전지판, 풍력발전기 등에서 생산된 전기에네르기를 축전지가 없이도 국가전력망에 직접 넣어줄수 있게 하는 우리 식의 계통병렬형 역변환기를 내놓았다.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소독기가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연구사들에 의해 개발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에서는 식료부문, 제약부문,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적은 원가를 들여 나노재료를 다량생산할수 있는 강력초음파처리기를 제작완성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첨단기술제품들가운데는 제품의 질과 자원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줄수 있는것으로 하여 대중의 호평을 받고있는 3차원인쇄기, 붓글련습천, 읽기펜 등도 있다.

이밖에도 평양의학대학, 리과대학 에네르기기초연구소, 의학연구원 환경위생연구소, 도시경영성 중앙난방연구소에서 내놓은 여러 제품이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였다.

개건현대화된 사리원포도술공장 준공식 진행

사리원포도술공장이 훌륭히 개건되여 준공되였다.

황해북도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해 기본생산건물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을 번듯하게 개건 및 건설하고 설비들을 제작설치하였으며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

새 제품생산공정과 함께 분석실, 제품견본실 등도 그쯘하게 꾸리였다.

공장이 개건현대화됨으로써 생산능력을 훨씬 끌어올리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준공식이 6일에 진행되였다.

강원도에서 단 몇달동안에 800여정보의 새땅 확보

강원도에서 새땅찾기를 군중적운동으로 벌려 단 몇달동안에 800여정보의 새땅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이 새땅찾기에 앞채를 메고나서서 대상지들을 정확히 조사장악하고 계획을 실속있게 세워 개간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평강군에서 물구역땅을 부침땅으로 전환할 목표밑에 사회주의경쟁을 드세게 벌려 한주일동안에 50여정보의 새땅을 찾아냈으며 1 000여t의 질좋은 거름을 내고 첫 작물로 가을밀을 심었다.

금강군, 판교군, 창도군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대형화물자동차와 삽차를 비롯한 각종 륜전기재들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강하천들과 산기슭을 잘 정리함으로써 수십정보의 부침땅을 얻어냈다.

원산시안의 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수㎞의 하천제방공사를 하여 많은 면적의 새땅을 찾아냈으며 법동군에서는 림진강의 하천을 정리하여 농작물재배면적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고성군, 세포군, 김화군에서는 올해에도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회양군, 이천군에서는 전달에만도 각각 36정보, 23정보의 부침땅을 얻어 경지면적을 넓히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새땅찾기성과를 계속 확대하는것과 함께 농작물을 심기 위한 준비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발해의 력사와 문화에 관한 학술토론회 진행

발해의 력사와 문화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7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과학, 교육, 출판보도,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연구사, 교원, 기자, 편집원들 등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시 해동성국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며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큰 역할을 한 발해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우리 나라 봉건국가들중의 하나인 발해는 200여년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고구려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한 동방의 강국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정치제도를 통하여 본 발해봉건국가의 성격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발해가 황제국가로서의 통치리념을 세우고 그에 맞는 국가정치체계를 갖춘 강력한 주권국가였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고 연구가 심화되는 과정에 발해봉건국가의 행정사무를 나누어 맡아 집행하던 중앙관청들인 6부의 명칭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바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이것은 발해가 변천되는 사회력사적조건과 환경에 맞게 국가통치기구를 부단히 개편하고 정비보강함으로써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최근에 김책시일대에서 조사발굴된 성상리토성의 규모, 축조방법, 탑하리무덤떼의 구조형식, 그곳들에서 나온 유물과 화대군 금성리벽화무덤을 비롯한 주변 유적들과의 호상관계로 보아 이 일대가 발해의 주급지방행정단위였다는데 대하여 론증하였다.

발해인민들이 고대로부터 형성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식생활문화를 이어온 고구려의 풍습을 계승발전시켜 식생활에 다양한 주식물과 부식물재료들을 리용한데 대하여 그들은 해설하였다.

토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고증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고려초기의 석불상 발굴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등의 연구집단이 남포시 온천군 송현리에서 고려초기의 석불상을 새로 조사발굴하였다.

송현리석불상은 크게 몸체와 받침대(기단)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몸체는 밑부분에 뿌리(촉)가 달려있다. 뿌리는 받침대중심의 홈에 맞물려 박혀있다.

불상의 몸체부분은 높이 235㎝, 너비 84~91㎝, 가슴부분두께 22㎝, 발부분 26㎝이다.

석불상은 백색의 화강석을 가공하여 만든것인데 부처가 련꽃을 새긴 받침대우에 서있는 모습으로 형상되여있다.

받침대앞면의 웃부분에는 길이 12㎝, 너비 1~1.2㎝정도의 련꽃잎이 12개정도 새겨져있다. 현재 중심부분의 꽃잎 1개가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으로 희미해지고 나머지는 뚜렷하게 남아있다.

송현리석불상은 두손으로 약단지를 받들어 감싸쥐고있는 자세로 보아 약사여래상으로 인정되고있다.

조사발굴과정에 전나무잎무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무늬가 새겨져있는 고려시기의 기와쪼각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기와쪼각들, 각종 자기쪼각 등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였다.

이와 함께 쇠활촉 2개, 옛 금속화폐 2개, 넙적한 쇠쪼각 2개도 나왔다.

학술연구고증결과에 의하면 불상의 비례구조와 옷차림새, 받침대형상 등 여러가지 징표에 근거하여 송현리석불상이 세워진 년대를 고려초기인 10세기초로 추정하고있다.

본사기자

방울

룡악산의 가을

◆예로부터 평양사람들은 봄에는 모란봉으로 꽃구경을 가고 가을에는 룡악산을 찾아가 단풍구경을 하였다. 지금 골안마다 빨갛게 노랗게 울긋불긋 단풍이 든 가을날의 룡악산등산을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룡악산의 기묘한 바위들과 절벽들, 수려한 산세에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과연 룡악산을 평양의 금강산이라고 부를만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룡악산유원지를 현지지도하시며 대봉에까지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악산은 산도 아름답지만 일만경치를 다 볼수 있어 더욱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대봉에서 내려다보이는 단풍든 룡악산의 가을도 절경이지만 전변된 평양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듯 한 장쾌한 광경이다.

로동당시대의 멋쟁이건물로 웅장화려하게 전변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만경대소년단야영소가 한눈에 안겨오고 지척에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룡악산비누공장과 룡악산샘물공장, 룡봉학용품공장도 보인다. 가을걷이를 끝낸 가없이 넓은 협동벌도 보이고 저 멀리 서쪽으로는 천리마의 고향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지구가 내려다보인다. ◆풍요한 가을날에 독특한 절경을 펼친 룡악산에서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애국의 열의로 불타고있다. 내 조국의 아름다움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주리라.

숭고한 인민사랑을 전하는 금강산

다양하고 웅장하며 수려하고도 기이한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있어 조선의 《6대명산》, 《조선팔경》의 하나로 이름높은 금강산.

조선의 명산이고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의 절경을 두고 예로부터 《금강산을 보기 전에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도 전해져왔다. 금강산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되여 우리 겨레는 각지의 경치좋은 산들에 대해서도 금강산에 비유하여 장수산은 《황해금강》, 칠보산은 《함경금강》, 석숭산과 금정산은 《의주금강》, 《동래금강》이라고도 불러왔다.

어느 나라의 시인은 조선의 금강산을 한번 보았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하였으며 외국의 한 려행가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세계의 어느 명산의 아름다움도 초월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산악미와 계곡미의 황홀함과 함께 고원경치, 전망경치, 바다가경치에 호수경치가 겹치고 바람과 구름이 봉우리들을 감도는 풍운조화의 경치에 울창한 산림과 희귀한 동식물, 만가지 조화를 부리는 물의 절경을 다 갖추고있어 금강산은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명승을 한곳에 모아놓은 명승지의 집합체를 이루고있다.

금강산 구룡연계곡의 가을

그처럼 경치좋고 세계에 이름난 조선의 명산이지만 지난날 봉건의 악정에 신음하던 가난한 우리 인민들은 금강산에 가볼 엄두도 못 내였다. 그시그시 먹고살기도 힘든데 어찌 명산유람을 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는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속담도 그래서 나온것이다. 오히려 금강산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속에서는 통치배들의 공물진상, 길안내, 가마메기 등 혹독한 부담만 지게 되여 《산이 어찌하여 다른데 있지 않고 우리 고장에 있어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라는 원망섞인 말까지 나왔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에는 민족의 명산이 일제의 강도적인 문화재와 자원략탈의 대상지로, 돈있는 자들의 유흥지로 되였으며 산천의 아름다움은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그러던 금강산이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피어린 항일대전으로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 그때부터 자기의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진정한 인민의 명산으로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항일의 나날 아름다운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로 항일유격대원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를 심어주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9월 어느날 금강산을 찾으시여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릴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외금강휴양소 일군들과 하신 담화 《**금강산을 근로자들의 문화휴양지로 꾸리자**》에서 금강산에 지하자원이 많지만 자연풍치에 손상을 줄수 있기때문에 개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 문화유물들을 잘 보호할데 대하여서와 휴양객들이 마음놓고 탐승할수 있도록 탐승시설들을 잘 정비하며 금강산을 인민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 이듬해 또다시 금강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와서 탐승도 하고 휴양도 하게 탐승시설을 더 잘 갖추어주도록 하시고 금강산을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더 잘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신계사지구총계획설계사판을 보아주시며 금강산유원지를 더 잘 꾸릴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고 금강산의 명소들을 돌아보시면서 명소들의 이름도 지어주시였다.

오늘도 인민들이 즐겁게 오르고있는 탐승길이며 곳곳에 꾸려진 휴식장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비롯하여 금강산의 봉우리, 계곡마다에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이 차고넘쳐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후덥게 해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금강산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탐승길을 안전하게 꾸리며 주위의 자연경치에 어울리게 여러가지 모양과 크기로 려관과 휴양소를 배치하고 금강산의 동식물을 적극 보호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금강산의 탐승로들을 돌아보시면서 시대적요구와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명소들의 이름도 바로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주체95(2006)년 9월 금강산에 오르시여 비로봉의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세월 착취계급의 독점물로 되였던 금강산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만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승지들이 많다고,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력사를 가진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에서 참된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비로봉의 해돋이를 부감하시며 인민의 행복에 넘친 모습, 민족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던 그날의 장군님의 모습을 인민은 오늘도 가슴마다에 뜨겁게 간직하고있다.

금강산의 1만 2천봉우리와 기묘한 절경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의하여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게 되였다.

예로부터 천하 으뜸가는 절승의 하나로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명산중의 명산으로 알려진 금강산을 공화국의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마음껏 즐길수 있는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훌륭히 꾸리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구상이다.

나라의 명승지들을 다양하고도 특색있게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충족시켜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0월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조국강토에는 뛰여난 명승지가 많지만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있는 금강산은 명승의 집합체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자연경치를 인민들이 한껏 즐기면서 휴식할수 있게 금강산지구에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를 훌륭하게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강산관광지구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련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은 려명거리건설과 마식령스키장건설, 완공단계에 이른 삼지연군건설과 양덕군온천관광지구건설 등 거창한 대건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고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로 이어진다는것을 현실로 체험하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전하며 금강산의 1만 2천봉우리가 더욱 빛을 뿌리고 해금강의 물결이 출렁이게 될 금강산관광지구의 희한한 전변의 새 모습은 벌써부터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해주고있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여 절승경개 금강산은 인민의 명산으로 세세년년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

아이들의 청각이 나빠지면 안된다고 하시며

주체105(2016)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

여러 소조실들을 보시고 현악소조실에서 소조원들의 연주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나직한 어조로 현악소조실 방배치를 잘못하였다고, 소리가 세서 아이들의 청각이 나빠지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확실히 현악소조실은 소조원수와 악기대수에 비해보면 크기가 작았고 소리울림이 컸었다. 하지만 누구도 아이들의 청각이 나빠질수 있다는데 대하여서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정보기술소조실의 인원이 12명이라는데 콤퓨터를 여기다 옮겨주고 인원이 많은 현악소조를 거기에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방배치를 능력에 맞게 다시 하라고, 아이들의 청각이 나빠지면 안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이 한창인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어느 한 살림집을 돌아보실 때였다. 여러칸이나 되는 방들의 갖춤새와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위생실도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세면대에 설치한 수도꼭지도 틀어보시고 타일을 붙인 벽과 바닥을 세심히 살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위생실이나 세면장 바닥을 제대로 시공하였는가 하는것은 바닥에 물 한바께쯔를 쏟아보면 알수 있다고 하시며 한 일군에게 물을 한바께쯔 부어보라고 하시였다. 그가 욕조의 물을 바께쯔에 담아 바닥에 쏟자 물이 순식간에 빠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이 빠지는것을 보시고 위생실바닥을 물이 쭉쭉 빠질수 있게 시공을 잘하였다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사랑과 정

《세계적으로 가장 젊고 매력적인 령도자로 찬사를 받고계시는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멋, 그것은 한마디로 인민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은 로씨야의 어느 한 인터네트신문에 실린 글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핵으로 하여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헌신성과 다심하고 뜨거운 인정미, 다정다감한 정서와 소박하고 겸허한 인품을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매혹과 칭송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있다.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이끄시여 전체 인민이 친근한 어버이로, 위대한 령도자로 받들고 따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인류력사를 소급해보면 어느 시대에나 인류는 사랑을 갈망했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제창한 학설이나 위인들도 많았다.

그러나 《자비》나 《덕치》, 《평등》과 《박애》는 사랑에 대한 인류의 념원과 소망을 실현시켜줄수 없었다.

사랑이 깃든 물건은 하나로도 족하다는 말이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며 인류력사가 리상으로만 그려본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현실로 펼쳐주신 사랑의 화신이시다.

어느해 여름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내가 지난 두달동안 현지지도한 단위가 공개된것만 하여도 60여개가 넘는데 그야말로 장군님처럼 낮과 밤이 따로없이 강행군을 하였다고,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내가 맨앞장에서 관철해나가야지 누가 나를 대신해주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애민헌신의 길, 멸사복무의 길에서 인민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사랑에 대한 일화들은 수없이 많다.

몇해전 새해 정초 새로 건설한 평양버섯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흐르는 해와 달의 모든 날과 날들을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정으로 가득 채우신다.

어느 한 농장에서 새로 육종한 팔뚝같은 강냉이를 받아드시고 너무 기뻐서여 얼마나 멋있는가, 정보당 10여t을 수확할수 있는 강냉이라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르겠다고 희열을 터치시였고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것이며 꼭 하고싶었던 일이였다고, 이렇게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즐겁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세심한가를 보여주는 이런 일화도 있다.

언제인가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손에는 책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들까지 들고 불편하게 걸음을 옮기는 아이들을 보시였다.

아이들에게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거듭 하시던 그이께서는 이를 위한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자신께서 연구하시던 100여페지나 되는 가방생산과 관련한 자료들을 해당 부문 전문가들에게 보내주기도 하시고 몸소 가방도안가, 제작자가 되시여 무려 450여건에 달하는 도안들도 보아주시였다.

인민의 기대와 믿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헌신분투해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더 잘 받들어나가자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들이 좋아하면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을 기쁨중의 기쁨, 보람중의 보람으로 여기시는 그이이시다.

세계의 언론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이끄시는분》,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으로 칭송하고있다.

만민을 감동시키는 절세위인의 인민사랑, 애민정치에 의하여 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생각을 기

무릇 타인이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말이 있다.

언제인가 뻬루의 한 과학자는 조선을 방문한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서방과 초대국들이 독점물처럼 휘두르는 첨단과학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이 나라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용광로속에서 급속히 벼려지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이 땅의 누구에게나 귀에 익은 말이다.

파도세찬 어장에도, 애어린 나무모를 자래우는 산지에도, 지심깊이 뻗어간 막장에도 들끓는 창조의 일터 그 어디를 가보나 비약의 대명사로 새겨진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이것은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공화국의 모습, 사회주의의 모습이다.

지금 이 시각도 지구상에서는 과학기술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여기서 기본은 인재육성과 확보여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인재양성에 투자를 집중하지만 온 나라 인민을 과학기술인재로 만드는 인재강국화의 목표를 내세우고 실천해나가는 나라나 국가지도자는 없다. 행성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현실이 공화국에서는 산 화폭으로 펼쳐지고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이 아니다.

공화국에 그물망처럼 뻗어있는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은 인민모두를 가장 발전되고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로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의 세계를 전해주고있다.

언제나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에도 들리시여 운영을 위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신다.

과학기술보급실을 근로자들 누구나 거칠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주신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자료열람과 기술학습은 물론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는 과학기술보급실들도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소질과 취미에 따라 학과를 선택할수 있고 시공간의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강의를 받을수 있는것이 원격교육의 매력이다. 기초지식과 능력이 각이한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학습내용을 제공받으니 이것은 그대로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로 이어져 평범한 근로자들도 발명가로, 창의고안의 명수로 되고있다.

평범한 근로자들도 창조의 거인들로 키워 과학의 힘으로 주체조선을 세계우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세계를 새겨안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태여난 이 새로운 풍경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인민들의 슬기와 재능은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 공화국은 강대하고 유족하고 문명한 미래로 도약하는 비상한 힘을 축적하고있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제재만능의 쇠사슬을 과학기술의 철퇴로 짓부시며 인재강국화의 넓은 길을 따라 과학의 상상봉으로 나래쳐오르고있다.

생명유기체가 쉬임없이 영양소를 받아들여야 줄기찬 활력속에 움직일수 있듯이 누구나 시대앞에 돋보이는 개발창조형의 인재로, 지식형근로자로 키워주는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은 이렇듯 인재육성의 뿌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마를줄 모르는 샘줄기이다.

본사기자 박영진

하나의 소비품에도

오늘 공화국인민들속에서 인기있는 소비품들가운데는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도 있다.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여러가지 포장용기들에 《룡악산》상표를 단 샴푸, 린스, 가루비누를 비롯한 제품들.

특히 옷물비누와 몸물비누, 그릇세척제를 비롯한 물비누제품들은 사용자들속에서 평이 좋다.

《세탁이 잘되고 아무런 화학적변화도 주지 않는다. 옷린스를 사용한것처럼 향긋한 냄새가 오래동안 지속되고 새옷을 입은것처럼 산뜻하고 부드러운감을 준다.》, 《몸물비누를 쓰면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해짐이 느껴지고 상쾌한 기분이 오래동안 유지되여 좋다.》…

국내산 원료와 자재로 생산하고있으며 사용안전성면에서도 나무랄데 없는 질높은 제품들이다.

수요자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감을 뿌듯이 느끼게 하고 생활상요구도 도모하는 다종다양한 《룡악산》제품들에는 인민들에게 더 좋은 비누제품이 차례지도록 기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깃들어있다.

주체105(2016)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시 건설중에 있던 룡악산비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생각에는 공장이 풍치수려한 룡악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것만큼 명칭을 룡악산비누공장이라고 명명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나라의 이름난 명승지인 룡악산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가 하는것도 안겨와 좋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며 현대적인 물비누공장을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공장건설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해 10월 완공된 룡악산비누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잘 건설했다고, 과학적인 기술공정설계에 기초하여 건축면적과 생산공간을 조성하고 설비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였을뿐만아니라 공장안팎을 흠잡을데 없이 꾸려놓았는데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생산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가지 제품들이 그득히 쌓여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년차별로 늘이며 그 질을 철저히 담보할데 대한 문제, 제품의 상표들을 더 세련시키며 비누생산용원료와 향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물비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교시를 여러차례나 주시였는데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하시면서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물비누와 세척제를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고 하시였다.

공장에서 고급한 물비누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였지만 그이께서는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하시며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인민들이 쓰고 남을만큼 물비누를 꽝꽝 생산해내면 그때 자신께서 만세를 부르겠다고 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 언제나 만족을 모르시는 그이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떠나시면서도 룡악산비누공장에서는 우리의 원료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물비누들을 꽝꽝 생산할 때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이 깊이 관심하는 공장,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공장이라고 하신 룡악산비누공장.

그 말씀에는 비누제품 하나라도 질좋은 우리의것을 인민들에게 넉넉히 차례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어려있다.

인민들이 사용하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최상의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였기에 이 공장건설을 중시하시며 설계형성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을뿐아니라 건설중에도, 완공된 다음에도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이다.

오늘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인민들의 높아가는 수요에 따라 처음의 40여가지로부터 190여가지로 늘어났다.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은 이 하나의 소비품을 통해서도 뜨겁게 가닿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량립될수 없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모든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문제는 외세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해결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지킬수 없고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롱락당하게 된다.

자기 민족의 운명은 민족자체의 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하기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지나온 인류력사의 갈피에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외세에 눌리워 모든것을 양보한탓에 국가의 존엄과 리익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민족의 운명이 수난에 처한 례가 허다하다.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오늘 더욱더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여년이나 우리 겨레에게 분렬의 고통과 비극을 강요하고있는 외세는 지금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단합하고 협력하여 통일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갖은 훼방을 놀고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이에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 누구나 분격을 터뜨리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앞에서는 《화해와 평화》의 악수를 하고 돌아앉아서는 자주성과 독자성이 없이 외세추종의 길만 답습하면서 북남합의들을 어느것 하나 제대로 리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다. 그런가하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게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고 최신전쟁장비반입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온 겨레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 전쟁과 평화가 량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결코 량립될수 없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도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한일혁

통일애국의 려정을 더듬어 (14)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3자회담의 제안

1980년대에 조선에서 통일로선과 분렬로선, 전쟁정책과 평화정책간의 대결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미국은 1 000여개의 각종 핵무기와 《F-16》전투폭격기를 비롯한 핵운반수단들이 배비되여있는 남조선에 중성자탄까지 배치하려고 서둘렀다.

또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자기들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남조선군과 함께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더욱 빈번히 벌리였다.

내외여론은 조선에서 새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될것이며 이 전쟁은 쉽사리 조선반도경외로 확대되여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인류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밀어넣을것이라는 위구를 표시하였다.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면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사이에 3자회담을 하는것이 시급한 문제로 나섰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에 기인되는것만큼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당국 3자가 한자리에 모여앉아 진지하게 협상함으로써만 실질적으로 해결할수 있었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사이에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공화국정부의 3자회담제안은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군대와 군비를 대폭 축소할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였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완전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는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회피할수 없는 의무였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당사자이며 남조선에서 군사적통수권을 틀어쥐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장본인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오랜 기간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아왔다.

특히 1980년대초에 《강력한 미국의 재건》을 표방하고 등장한 레간행정부는 《힘의 정책》의 중심을 핵선제타격전략에 두고 아시아를 그 전개의 중심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전략구상에 따라 미국은 남조선을 핵기지, 핵화약고로 만들기 위한 책동에 로골적으로 매달리며 남조선군과 야합하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가상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확대해갔다.

남조선은 조선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는데 직접 책임이 있는것만큼 공화국정부는 공화국과 미국과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한것이다.

3자회담을 통하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게 될것이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전제가 마련될수 있었다.

공화국정부는 1984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를 통해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토의하고 공화국과 미국과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시켜 3자회담을 진행하며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의하였다.

련합회의는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여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가 마련된 다음 조국통일3대원칙에 맞게 통일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도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집결한 전민족대회가 마련되여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이러한 3자회담제의를 담은 편지를 각각 미국정부와 국회 그리고 남조선당국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1984년 1월 25일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하여》를 심의하고 조미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엄중한 사태를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진지한 노력의 표시이며 세계평화위업에 충실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의 표시였다.

공화국정부가 3자회담을 통하여 이루려고 한 평화제안은 평화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전쟁을 근원적으로 청산할것을 예견한 자주적이며 철저한 평화제안이였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와 관련한 모든 유관국과 문제를 폭넓게 전면적으로 해결하려는 포괄적인 평화제안, 조국통일의 전제를 마련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통일지향적인 평화제안이였다.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은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우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방안이였다.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이 발표되자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여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여나섰으며 각계층 전체 인민이 그 조속한 실현을 각 방면으로 촉구하여나섰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적폭압속에서도 3자회담을 적극 지지하여나섰고 해외동포들도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온 세계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실질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3자회담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의 3자회담제안에 《남북대화》, 《유관국가회의》라는것을 대치시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에 《4자회담》을 들고나오다가 다음에는 《남북당국자대화》라는것을 주장해나섰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가면서 《남북대화》와 《주변관계국회의》에 대해 떠들었다.

그러나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3자회담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수 없었다.

본사기자 최광혁

수기

어제날의 풋팔이군이 명배우로 (1)

요즘 거리에 나서면 마가을의 락엽들이 한겨울의 눈마냥 흩날린다.

봄내 여름내 푸르싱싱한 기상을 떨치던 잎사귀들이 황이 들어 떨어지는것을 보니 아쉽기 그지없다.

례사롭게만 보아오던 가을풍경이 내 심중을 흔드는것은 나 역시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다는 그것때문일것이다.

그러면서 저도모르게 저멀리 흘러간 인생이 돌이켜진다. 그럴 때면 부지중 제일먼저 뇌리에 떠오르는것은 시아버지의 모습이다.

남조선에서 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시아버지는 영화예술계에 오래동안 몸을 담고 일해오면서 온 나라에 알려진 인민배우 황영일이다.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서 우리 겨레가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가는 조선총독이였던 이등박문의 역을 맡아 신통하게 형상한 배우가 나의 시아버지이다.

시아버지는 영화들에서 주로 부정인물역형상을 많이 한 개성있는 배우로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이름난 영화배우가정에 시집온것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것은 새며느리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곱지 못했기때문이였다.

(아이참, 시아버님은 왜 그러실가…)

사실 우리 시집에서는 맏아들(황승룡, 나의 남편이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분위기가 매우 팽팽했다고 한다.

집안에 아들이 셋이나 되였지만 그중에 아버지처럼 영화배우의 소질을 타고난 자식은 없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시아버지는 맏아들에게 혹시나하고 기대를 걸었지만 끝내 조선기록영화촬영소(당시) 조명사로 방향전환을 하는 바람에 그만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로 되고 말았다.

시아버지는 락심하지 않고 이번에는 며느리라도 배우들중에서 고르리라 결심하고 여러명의 녀배우들을 아들앞에 내세웠으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맏아들이 재단사처녀와 살겠다고 하자 그만 노여워서 며칠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썩 후에야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사연이였다.

당시 그 사정을 알리 없는 나는 시아버지가 몹시도 어려웠다.

시집온 후 나의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고맙게도 알뜰하고 인정많은 시어머니(차천명)가 나의 허전한 마음을 메꿔주군 했다. 그때 촬영소적으로 《차꽃분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시어머니는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었다.

사실 그때 시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길없는 나는 마음씨고운 시어머니의 손길에 이끌려 시집문턱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무뚝뚝한 시아버지의 얼굴을 대하자니 내 마음도 편안치 못하였다. 그렇다고 맥을 놓고 주저앉고싶지 않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일단 이 집 며느리가 된 이상 어떻게 하나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늘 남자들이 집걱정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외우며 가정살림을 깐지게 하였고 음식솜씨 또한 료리사 찜쪄먹을 정도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살림살이 방법과 음식솜씨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시아버지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 즐겨 피우는 담배를 사다 올린다 하며 열성을 부리였다.

헌데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허사였다.

시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고 뚝한 성미였다. 출장을 가야 할 때도 《차천명동무(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늘 이렇게 불렀다.), 래일 출장가는데 준비 잘해주시오.》라고 한마디 하면 그만이였다.

그런 시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것은 콩나물덕이였다.

어느날 나는 시어머니가 출근길에 오른 시아버지에게 닦은 콩을 한줌 쥐여주는것을 보게 되였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갔지만 꼭 무슨 사연이 있는것만 같아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아이들처럼 닦은 콩은 웬거예요?》

《오, 그게 당뇨병에 좋다는구나.》

알고보니 시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있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두 굳은 닦은 콩보다는…)

그래서 생각해낸것이 콩나물이였다. 나는 그길로 본가에 달려가 콩을 가지고 돌아와 콩나물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방안의 구석에는 콩나물시루가 놓이게 되였고 나는 집에 들어서기만 하면 거기에 붙어살다싶이 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하나 시아버지의 병을 내 손으로 꼭 고쳐드리고싶은 심정뿐이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저녁식사를 물리며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콩나물찬이 참 맛있구나.》

시집온 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건네는 말이였다.

시아버지의 칭찬앞에 나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서 자기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다.

《아버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때는 어찌나 기뻤던지 벌떡 일어나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였다.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인데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도 콩나물에 물을 주며 정성을 기울이는 며느리의 진정을 안 다음부터 시아버지는 자기가 너무했던것 같다고 여러번이나 말했다는것이다.

그후엔 내가 입쓰리하는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아름이나 되는 살구를 슬그머니 안겨주기도 하였다.

원래 시아버지는 인정많고 마음고운분이였다. 전후에는 서울에서 같이 들어온 동료들이 집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사정을 알고 방 한칸을 내주고는 몇년동안이나 한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남편의 이름과 시동생들의 이름도 그때 함께 살던 동료들이 지어주었다고 한다.

어느날 나는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버님, 헌데 왜 그렇게도 배우며느리를 얻으려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며느리를 《랭대》한 시아버지에 대한 고까움에 가까운 솔직한 심정이기도 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움쭉 일어나 자기 방에서 두툼한 책을 가지고 나오는것이였다.

《이건 내가 오래동안 써오는 수기이다. 읽어보거라.》

나는 흥분된 심정을 안고 시아버지의 심혈이 담겨진 수기집의 첫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관중들의 박수갈채속에 인생의 단맛을 뿌듯이 느끼군 하는 영화배우 황영일이다.

아니, 내가 어찌 감히 그 말부터 할수 있겠는가. 왕년에 머나먼 할빈땅과 서울의 골목골목을 정처없이 방황하며 진정한 배우생활을 꿈꾸었건만 가는 곳마다에서 랭대를 받고 망국노의 운명을 한탄해야 했던 불우한 이 나라 사람들중의 한사람에 불과했다. …》

황영일선생

나는 밤이 새도록 곡절많은 한 배우의 인생사를 눈물속에 읽고 또 읽었다.

…청운의 뜻을 품고 14살 때 집을 뛰쳐나온 후 국수집화부로, 책방청소부로 떠돌이생활을 하다가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함경남도 홍원군의 시골태생인 3대머슴의 아들, 고향을 등지고 멀리 설한풍 휘몰아치는 만주광야에 운명을 맡겨보기도 했고 생계를 유지할수 없어 만두를 빚어 팔기도 하고 흥행단을 따라다니기도 했던 류랑아의 그 시절…

흥행업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서울에 온 후 시아버지는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외세가 강점한 남조선에서는 진정한 민족예술활동을 할수가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이 해방되면서 시아버지는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였다.

그때부터 시부모들의 운명에서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일제통치의 어둠을 불사르고 해방의 아침이 밝아오기 한해전에 시아버지와 가정을 이룬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인민군용사들을 고무하는 예술활동에 참가하였으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어린 두 자식을 서울에 두고 후퇴의 길에 올랐다고 한다.

참혹한 전쟁은 그후 남녘에 두고온 두 자식의 생명도 앗아갔다. 시어머니는 《그애들이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아마…》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군 하였다.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차천명동무, 우리가 더 늙기 전에 두 아들의 령혼이 남아있는 땅, 조선의 연극을 해보겠다며 뛰여다니던 저 남조선에 단 한번이라도 가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시어머니는 눈굽을 찍으며 고향땅이 있는 남녘하늘가를 바라보군 하였다.

시어머니의 고향은 강원도(남) 춘천시이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아버지없이 세 자식을 키우며 갖은 고생을 다하는 자기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돕고싶은 마음에서 청춘좌라는 극단에 들어가 배우생활을 하였다. 그후 여러 극단으로 옮기면서 일을 하였지만 집살림은 좀처럼 펴이지 않았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자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우리 부부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너희들의 오늘도 없었을게고 이런 행복한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을거다! 이제 통일이 되면 오늘의 행복한 모습을 고향사람들에게 자랑하련다.》

하기야 이 나라 사람들치고 분렬로 인한 아픔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랴. 그래서 통일은 온 겨레의 소원이라고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수기의 마지막페지를 펼쳤다.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누구나 부러워하는 영광의 단상에 올라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오늘 나의 마음속에는 자나깨나 나라의 은덕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그 길이 바로 안해의 고향에 함께 가는 길이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나의 기량이 부족하여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다 내가 만약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자식들중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허전해지군 한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때에야 나는 어째서 시아버지가 영화배우며느리를 얻으려고 하였는지, 어째서 자나깨나 오직 연기훈련밖에 모르시는지에 대하여 다소나마 알게 되였다.

나는 영화배우가 아닌 자신이 민망스럽게까지 생각되였다.

원숙(황영일의 며느리)

긴장격화를 초래하는 무모한 불장난

남조선에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초래하는 무모한 불장난소동들이 계속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두주일간 진행된 《호국》훈련도 그러한 불장난의 하나이다. 수만명이 참가하여 벌려놓은 《호국》훈련은 남조선군의 군사대비태세유지와 합동작전수행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해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훈련, 륙군과 공군의 합동방공훈련 등으로 진행되였다.

이 《호국》훈련과 관련하여 남조선군부당국은 《년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성격의 훈련》인듯이 묘사하였지만 이것은 저들의 범죄적인 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언사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이번 《호국》훈련에서 진행한 해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훈련은 방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지를 빼앗기 위한것으로서 철두철미 공격용훈련이다. 이러한 공격훈련을 두고 방어훈련이라고 말장난을 부리는것은 실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 저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고 쩍하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상대방을 위협하는 합동전쟁연습의 굉음이 년중 그칠 사이없이 계속 울리고있는 곳도 남조선이고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자금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최신전쟁장비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이고있는것도 바로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다.

위협은 누가 하고있는데 웬 《방어》타령인가 하는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로 확약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철저히 리행되여 이 땅의 하늘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끼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있다. 이러한 때에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정면도전하여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북침전쟁의 화약내를 짙게 풍기며 《호국》훈련을 벌린것은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에 역행하는 군사적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군부당국이 《평화》타령을 늘어놓고 《군사적신뢰구축》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동족을 해칠 궁리만 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대화와 군사적대결, 평화와 전쟁연습소동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평화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여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벌리는 무모한 북침전쟁불장난소동들이 북남사이에 대결의 불씨로 되리라는것은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시대와 겨레의 지향에 배치되는 무분별한 망동으로 남조선군부세력들에게 차례질것은 죽을줄도 모르고 불에 덤벼드는 부나비신세뿐이다.

장명철

날강도적인 본성의 발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최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문제를 놓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남조선당국을 압박하고있는것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얼마전 미국무성은 하와이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2차회의를 앞두고 낸 성명이란것을 통해 《트럼프대통령은 남조선이 좀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립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떠들었다.

이보다 앞서 미국방장관은 《동맹국들은 무엇이든 방위비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남조선이 미국의 《방위비》증액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얼마를 요구하고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기존《방위비분담금》에 전략자산전개비용과 남조선강점 미군의 인건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있다, 50억US$이상을 요구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강도적인 요구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숱한 침략무력을 주둔시키고있는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전략적목적에 따른것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막대한 돈을 남조선이 부담해야 한다는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있는가를 잘 말해준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문제를 놓고 남조선당국을 압박하고있는것도 언론의 도마우에 오르고있다.

얼마전 미국방부 인디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는 북의 미싸일발사, 싸이버공격 등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미국미싸일방어청장 역시 어느 한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때만 최적의 미싸일방어를 제공할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도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는 한미일안전보장에 매우 리롭다.》고 하면서 《지소미아》로 돌아올것을 남조선에 촉구하고싶다고 했다.

이것은 미국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한 남조선당국에 자기의 주장을 바꿀것을 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일본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문제로 말하면 엄연하게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문제이고 일본의 강도적인 수출규제조치때문에 산생된 문제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압박하고있는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추구하고있는 남조선미국일본사이의 3각동맹이 허물어지는데 대한 위기감에 따른것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남조선당국은 일본이 먼저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어야만 남조선일본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이 가능하다는 립장을 취하고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미국이 저들의 손을 들어줄것을 바라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애당초 미국의 강도적인 본성을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짓에 불과하다.

미국에 있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하여 남조선이 입는 손해쯤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경제적과제가 안보과제로 파급돼서는 안된다.》고 한것은 미국이 결코 남조선을 위해 저들의 리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현실은 미국이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앞으로도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적이며 탐욕적인 리익실현에 복종하는 한갖 하수인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리훈혁

반드시 밝혀져야 할 반인륜적범죄

얼마전 남조선《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사회의 이목은 래년 광주인민봉기 40년을 앞두고 광주대학살만행 진상조사위원회가 올해안에 구성될수 있는가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여론들은 조사위원회의 출범이 쉽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하였다.

여론의 예측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5.18광주학살만행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하여왔기때문이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2월 남조선《국회》에서는 광주인민봉기당시 감행된 대학살만행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였으며 9월 14일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되였다.

이에 따라 여야당이 추천하는 조사위원들로 광주대학살만행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패들은 조사위원추천을 질질끌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것을 극력 방해해나섰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구성에 대한 각계층의 요구가 높아지자 《자유한국당》패들은 지난 1월 광주학살만행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비난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으로 선정한자들은 하나같이 광주인민봉기의 정신을 외곡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온자들이기때문이다.

지어 《자유한국당》것들은 광주인민봉기를 모독한 전적이 있는 극우보수분자까지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고 꾀하였다.

여기에 《자유한국당》패들은 투명성을 걸고들며 광주학살만행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들고나오는 등 위원회의 구성을 이모저모로 방해해나섰다.

이와 같이 《자유한국당》패들의 비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난해 광주대학살만행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채택된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유한국당》패들은 지난 2월 《국회》에 극우보수론객을 끌어들여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광주인민봉기를 《북의 특수부대에 의한 폭동》으로, 봉기희생자유가족들을 《종북좌파가 만든 피물집단》으로 모독하는 망언들을 늘어놓아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였다.

이번에 남조선《국회》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였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적을 놓고 볼 때 보수패당이 《국회》의 결정이라고 하여 무조건 집행한다고 볼수 없다는것이 여론의 평가이다.

더우기 《자유한국당》으로 말하면 자나깨나 파쑈암흑시대를 되살릴 개꿈만 꾸는 가증스러운 악의 집단이다.

이런자들이 저들 조상들이 감행한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이 밝혀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것이며 진상조사를 음으로양으로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자유한국당》패들이 또다시 갖은 오그랑수를 쓰면서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규명을 방해할 경우 남조선민심이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력사에 류례없는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범죄의 장본인들은 준엄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파쑈독재의 부활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여 떨쳐나서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구제불능정당》이 갈 곳은…

남조선에서 《유치하고 망신스러운 자유한국당》, 《유일무이한 쓰레기당》,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거짓말정당》, 《국정을 말아먹는 발목잡기당》, 《종북공세 없으면 존재 못하는 불필요한 당》, 《당장 해체되여야 할 친일적폐정당》, 《부패정당》 등 온갖 오명을 뒤집어쓴 《자한당》에 민심은 이번에는 《구제불능정당》이라는 딱지까지 붙이였다. 《자한당》이 《구제불능정당》의 오명을 쓰게 된것은 그 누가 억지로 붙여준것이 아니라 저들스스로 자초한것이다.

따지고보면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행적은 폭력적인 쿠데타와 모든 관권, 금권은 물론 갖은 권모술수로 권력을 탈취하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만을 일삼은 더러운 죄악으로 일관되여있다. 리승만과 박정희가 그러했고 그 후예들인 전두환, 로태우, 리명박, 박근혜 역시 그러했다. 어디 이뿐인가. 일신의 안락과 부귀, 권력유지를 위해 파쑈독재를 일삼으면서 민주주의를 교살하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부정부패행위로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행만을 강요해왔다.

죄에는 벌이 따르기마련이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부정부패만을 일삼던 리승만이나 박정희의 종말과 권력에서 쫓겨나 감옥행까지 한 전두환, 로태우, 리명박, 박근혜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을 등진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으면 자숙하고 심사숙고할 대신 권력야욕에 환장한 《자한당》의 역적무리들은 저들의 죄과에 대한 반성은커녕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면서 남녘의 초불민심에 정면도전하고있다.

설맞고 되살아나 독을 쓰는 독사마냥 초불민심에 의해 기가 죽어 바퀴처럼 숨어있다 다시 기여나와 악을 쓰는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박근혜석방과 적폐청산의 반대를 줴치며 민심에 도전해나서고있다.

그 앞장에는 최근에 폭로된것처럼 박근혜탄핵사태시 쿠데타까지 일으켜 파쑈독재권력을 유지해보겠다고 악을 써대던 황교안이 서있다.

박근혜《정권》에서 《국무총리》질을 하면서 권력이라는 뼈다귀맛을 조금이나마 맛본 황교안은 그때를 그리워하며 어떻게 해서나 권력을 되찾아보겠다고 살기등등하여 날뛰고있다. 민심은 살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인데 《자한당》 대표라는 황교안은 제 졸개무리들을 내세워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어놓고 매일과 같이 거리에 뛰여나와 현 당국을 비난하며 반《정부》란동만 일삼고있다. 지금 《자한당》은 11월 한달을 민심의 요구인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안통과를 막아보겠다고 남조선의 전 지역을 돌아가며 그무슨 순회집회를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각계에서는 《자한당이 서울에서 맞불집회도 모자라 전국을 싸다니며 〈좌파독재악법〉(공수처법, 선거법개정안)파헤치기를 하겠다고 한다. 검찰과 선거제도개혁, 민생과 경제를 살피고 결과를 내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니 역시 구제불능정당이다.》라는 비난과 조소가 터져나오고있다.

가관은 황교안을 비롯한 《자한당》세력들이 저들이 벌리는 장외집회, 맞불시위등의 란동을 《민생》과 《안보》의 보자기로 포장하여 미화분식하고있는것이다.

부패와 탐욕, 온갖 적폐가 구데기처럼 서식하고있는 쓰레기당이 《민생》이란 말을 입에 올리고 평화의 교살자들이 《안보》를 떠드는것자체가 돼지주둥이에 연지바르는 격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민심에 대한 잔인무도한 피의 복수전으로 초불항쟁의 소중한 성과들을 무참히 짓밟고 그 란무장우에서 파쑈독재체제를 부활시키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 신성한 초불민심을 우롱하며 피묻은 죄악의 손을 뻗쳐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깡그리 교살하고 파쑈독재의 공포시대를 재현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당의 너울을 쓴 깡패조직, 오물장에서 돋아난 독버섯으로서 반드시 쓸어버려야 할 사악한 무리들이다. 민심이 요구하는 정치는 안중에 없이 권력쟁탈에만 여념이 없는 《자한당》과 같은 《구제불능정당》이 갈 곳이란 력사의 시궁창밖에 없다.

본사기자 안권일

조소거리로 된 적폐당의 《인재》영입놀음

10월 31일 남조선의 《자한당》이 《당혁신》을 위한 《인재》영입 1차발표라는것을 하였다.

여기서 《자한당》것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적폐청산에 희생당한 인재들을 주로 모셨다.》며 앞으로 2차, 3차발표를 통해 더 많은 《인재》들을 끌어들여 당을 《혁신》할것이라고 허세를 부리였다.

하지만 빨래줄에 날아오른 수탉같이 멋대가리없는 그들의 꼴불견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조소와 비난의 목소리가 그칠줄 모르고있다.

《인재》영입놀음은 《자한당》의 추악한 면모와 불순한 야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자한당》패들이 박근혜역도의 《국정》롱단, 부정부패범죄에 적극 추종, 가담해나선 적폐무리라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만일 손톱눈만큼이라도 정치집단으로서의 체모와 량심이 있다면 《자한당》은 역도년과 얽혀돌아간 모든 범죄내용들을 공개하고 공범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스스로 해체되여야 마땅할것이다.

하지만 《자한당》무리들은 언제 한번 이에 대해 사죄와 뉘우침을 하지 않았으며 거꾸로 초불민심을 《좌파란동》으로 매도하고 진보개혁인사들을 《사회주의자》로 몰아대다 못해 이제는 민주개혁을 말살하고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겠다고 발광하고있다.

황교안이 《적폐청산의 희생물》이라고 떠들어대는 《영입인사》들을 들여다보면 절대다수가 과거 《자한당》무리가 저지른 온갖 적폐범죄들의 공모자, 부역자들이다.

영입대상에 포함된 한 인물은 이미 2017년 홍준표가 《자한당》 대표로 있던 시기 《당혁신위원》으로 있으면서 범죄집단을 미화분식하기 위해 요사한 《계략》을 꾸며내고 황교안밑에서도 허황한 《민부론》을 고안해낸자이다.

언론분야의 《인재》라는 인물도 역도년에 의해 빚어진 《세월》호참사와 슬퍼하고있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적폐원흉들의 심사에 맞게 외곡보도하고 진보언론인들을 마구 해고하여 《정권의 입》으로 규탄받다 쫓겨난자이며 청년층을 대표한다는 《인재》는 《자한당》의 《국회》의원 비서의 남편이라고 한다.

특히 황교안이 몇번이나 찾아가 설복하여 《인재영입 1호》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던자는 숱한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처까지 동원하여 사병들을 노예부려먹듯 한것으로 하여 《갑질대장》이라는 사회적지탄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현재도 뢰물범죄로 재판을 받고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황교안은 이런 인간추물들을 《인재》, 《신선한 인물》로 추어올리고있으니 그의 정치적식견과 지능의 저질스러움에 누구나 아연해하고있다.

오죽하면 다른 정당들은 물론 《자한당》내에서도 이번 영입놀음을 두고 《감동이 없다.》, 《시작부터 삐걱》, 《한계가 드러난 리더십(지도력)》, 《황교안으로서는 래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등의 불만들이 튀여나오고있겠는가.

보여주는 현실은 《자한당》이 《인재》영입놀음에 아무리 분칠, 색칠을 하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반민주집단, 적폐정당, 정치시정배, 권력야심가들의 무리로서의 체질과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고있다.

지저분하기는 오간수다리밑 같다는 속담그대로 별의별 정치오물, 부패추물, 인간오작품들을 《인재》라는 명목으로 끌어들여 민심을 기만하고 재집권하려는 황교안과 《자한당》패들의 헛된 망상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금경학

정치파괴, 패륜집단 《자한당》을 해체하라

남조선신문이 강조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서울의 소리》가 10월 31일 《정치파괴, 패륜집단 자한당을 해체하라》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론평은 최근 《자한당》대표 황교안과 원내대표 라경원이 《태극기모독단》이라는 폭력집단이 벌려놓은 집회에 합류하여 《대통령》퇴진을 떠벌이고 내란을 선동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자한당》의 목적은 사회를 폭력으로 얼룩진 혼란으로 몰아감으로써 《국회》를 파행시키고 일본의 아베정권이 원하는대로 친일《정권》을 재건하는것이라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론평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토착왜구당》의 본분인 매국에만 《충실》하며 반역행위를 서슴지 않는 《자한당》을 당장 해체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사법적폐청산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주둔 미군의 세균무기반입과 실험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0월 31일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철거 남구지역대책위원회가 부산항 8부두앞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의 세균무기반입과 실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제 마음대로 유지비를 강탈하고 전쟁연습을 벌려놓다 못해 세균무기실험까지 하고있다고 격분을 터쳤다.

미군의 세균무기반입이 잔악한 일제의 731부대를 련상케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미군이 부산시민을 생체실험대상으로 여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에서는 세균을 가지고 위험천만한 실험을 도시 한복판에서 감행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세균무기실험실과 함께 미군을 남조선에서 당장 철거시키라고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번지는 정보화열풍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9를 돌아보고

현대화, 정보화를 추동해갈 드높은 열의

얼마전 우리는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9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평양체육관을 찾았다.

전람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국가정보화국 일군은 《수자경제와 정보화열풍》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람회에 위원회,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과 기관, 기업소, 정보화모범단위, 정보산업단위들에서 내놓은 1 600여건의 정보화성과, 정보기술성과, 정보기술제품들이 전시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이룩된 첨단정보기술성과들과 정보기술제품들, 교육의 정보화실현에 기여할 교육정보체계들과 교육지원프로그람들을 비롯하여 자체의 힘으로 단위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운 성과들이 전람회장을 꽉 채우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전람회기간 다양한 형식의 전시회, 인공지능프로그람경연, 프로그람작성경연, 새 제품 및 새 기술발표회, 로보트들의 축구경기, 정보기술교류봉사가 진행되게 된다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인공지능관련프로그람들을 비롯한 첨단정보기술성과들을 출품한 평양정보기술국전시대였다.

정보산업발전의 선구자, 관록있는 개발단위로 널리 알려진 평양정보기술국에서는 이번 전람회에 수자경제와 사물인터네트, 구름연산과 대자료분석,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보기술성과들을 내놓았다.

평양정보기술국의 한 일군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연구성과들이 지능로보트, 자연언어처리, 음성 및 화상인식, 대자료분석과 자료발굴 등에 널리 응용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정보기술연구소에서 내놓은 지능고성기와 얼굴인식출입관리체계 《눈빛》도 참관자들속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들이 개발한 지능고성기는 사람의 음성지령을 인식하여 선풍기와 공기조화기, TV, 전등을 비롯한 가정용품들에 대한 자동조종을 실현할수 있는 장치였다.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하여 높은 정확도로 홍채에 반영되는 인체의 건강상태를 짧은 시간동안에 분석평가할수 있는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의 홍채건강분석프로그람에 대한 호평은 대단했다. 만경대해양기술교류사에서 내놓은 공중무선망판형콤퓨터와 원격교육용판형콤퓨터, 무선망접속기를 비롯한 정보말단제품들과 쏘프트웨어들에 대한 참관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이뿐이 아니였다.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의 정보화,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 완전IP화, 통신망의 광대역화, 국가산림관리종합정보체계, 신의주화장품공장 통합생산체계, 광복지구상업중심 통합봉사체계, 수자식토양분석기에 의한 비료시비체계 등 수많은 통합생산체계들과 프로그람들도 높은 수준에 올라선 나라의 정보기술의 발전면모를 엿볼수 있게 하였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를 개발한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감자가루와 가공품생산과정의 기술적담보를 위한 모의환경을 구축하고 제품의 특성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량화된 생산공정모의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애로가 많았지만 우리 식의 탐구전, 창조전을 힘있게 벌려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개발창조형의 첨단프로그람들을 더 많이 연구해내겠습니다.》

전람회장을 돌아볼수록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누구나, 어디서나 드높은 첨단돌파열기로 심장을 불태우며 세계적인것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벅차게 느낄수 있었다.

참으로 이번 전람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의 정보기술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 지식경제시대, 수자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힘찬 전진의 발걸음을 내짚도록 고무추동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우수한 첨단정보기술제품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9에는 우수한 첨단정보기술제품들이 많이 출품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국내에서 정보기술업계를 대표하는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들중의 하나로 인정받고있는 푸른하늘련합회사에서 출품한 정보기술제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 시기 여러 종류의 지능형, 기능형손전화기들을 출품하여 인기를 끌었던 이곳 회사에서는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손전화기들을 내놓았다.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한 사진가공, 3중뒤사진기의 도입으로 고화질촬영, 고직접도기판설계기술의 도입으로 축전지사용시간을 늘인것 등 새형의 손전화기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른 지능형손전화기들에 비해 외형 및 구조, 손전화기의 핵심요소들과 조작체계프로그람들이 더욱 개선되고 특히 회전벡토르수감, 쟈이로스코프수감, 선형가속도수감 등 여러 수감기능들이 첨부되여있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리용할수 있다.

락원기술교류사에서 출품한 락원지능형TV는 콤퓨터망과 련결하여 영화와 편집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매체들과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고 요구되는 응용프로그람의 설치, 오락과 화면반주음악의 리용 등 풍부한 기능들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주목을 받았다.

판형콤퓨터 혹은 지능형손전화기에 설치된것과 같은 매몰형조작체계가 설치되여있는 락원지능형TV는 건반과 마우스의 입력이 가능하여 원격조종기 하나로만 조종하던 종전의 TV들과 달리 여러가지 장치를 련결하여 실행조작을 할수 있게 되여있다.

평양대진첨단기술개발사에서는 각이한 주파수에 대한 인체의 생체전도도를 측정하고 콤퓨터를 리용하여 단백질, 지방, 수분, 무기질, 근육 등 주요인체성분들의 량을 계산해내는 의료설비인 가정용건강검진기와 건강운동발춤기재 《춤가락》을 출품하였다.

새기술개발연구소에서 출품한 생물공진기술을 리용한 생물전기주파수치료기, 영봉기술교류사에서 출품한 비접촉식3D카드인 려객봉사카드들, 국립연극단 정보기술교류실에서 출품한 건강운동발판 《산울림》, 아침콤퓨터합영회사에서 출품한 적외선전자칠판 《아침》,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에서 출품한 공정조종반인 분산형조종장치 《미래102》, 소백산총회사에서 출품한 레이자재단기, 메아리음향사에서 출품한 소리연필도 우수한 정보기술제품들이였다.

전람회에는 량강도정보화관리국에서 출품한 지능형전화경보기, 남포시정보화관리국에서 출품한 휴대용철판두께측정기와 토양풀림액종합측정기, 남포제1중학교에서 출품한 직류다리에 의한 저항측정, 전지의 전동력측정실험장치를 비롯하여 각 지방에서 출품한 제품들도 많았다.

이번 전람회에 참가한 단위들과 기술자들은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다양한 인공지능제품, 지능형정보기술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김춘경

관심을 모은 가치있는 프로그람들

이번 전람회에서는 지식경제시대,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프로그람들이 수많이 출품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기술갱신주기가 부단히 앞당겨지는 오늘날 첨단돌파의 주도권은 정보화실현에 있으며 프로그람개발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지난 시기 수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온 나라에 소문난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의 전시대는 참관자들로 붐비였다. 어느것이나 다 그러하지만 특히 콤퓨터비루스왁찐프로그람 《참빗》 4.0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오늘날 콤퓨터비루스는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비루스처럼 콤퓨터내에서 자체전염, 잠복, 발병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적문제로까지 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에서 새롭게 갱신하여 출품한 콤퓨터비루스왁찐프로그람 《참빗》 4.0으로는 1분동안에 은폐형비루스까지도 말끔히 제거하며 검출, 제거, 갱신도 자동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산림자원관리정보봉사프로그람 《황금산》도 사용자들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로정길 림업성 부원은 산림자원관리정보봉사프로그람 《황금산》에 대하여 《개인용콤퓨터와 이동장치환경에서 산림자원관리와 여러가지 업무활동을 지원하는것으로 하여 편리할뿐아니라 산림자원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분석하여 산림복구사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삼흥경제정보기술사의 전시대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출품한 프로그람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은 삼흥경제정보기술사에서 개발한 《새 세기 삼흥》다국어사전프로그람을 두고 최신인공지능기술인 심층신경망기술을 응용한 고성능문자인식단어추출기능을 구현한것으로 하여 널리 사용되고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묘향정보기술교류소에서 개발한 판형콤퓨터조작체계 《룡흥》,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 내놓은 《고려4상체질약처방지원프로그람》 2.0, 평양교통운수대학에서 내놓은 가상환경에서의 차갈이작업모의실습프로그람, 금성제2중학교에서 개발한 자연과학교육지원프로그람 《자연의 세계》, 조선체육대학에서 내놓은 호흡측정기재에 의한 체육선수심리상태평가프로그람, 평양시교육국에서 개발한 교수참관 및 평가프로그람, 강원도전자업무연구소에서 내놓은 어장탐색프로그람 《동해》 5.0, 황해북도전자업무연구소의 산불감시체계 《정방산》 2.0을 비롯한 수많은 프로그람들도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인공지능프로그람경연과 프로그람작성경연도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김진혁

인민의 참된 봉사자가 되여

—함흥시 동흥산구역 편의봉사사업소 신발수리공 리동룡의 가정—

직업의 귀천이 따로 없는 공화국에는 인민의 참된 봉사자가 되여 애국의 값높은 삶을 수놓아가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함흥시 동흥산구역 편의봉사사업소 신발수리공 리동룡과 그의 가정도 있다.

리동룡이 신발수리공으로 일하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안남도의 어느 한 군에서 온 가족이 신발수리공으로 일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대견해하시며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한생을 신발수리공으로 일해온 리동룡의 부모들인 리갑준, 김영숙로인들은 그 소식에 접하고 어느 한 공장에서 일하던 아들과 두 딸을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평범한 신발수리공가족에게 돌려주신 사랑은 우리 신발수리공 모두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들도 부모들의 뒤를 이어 신발수리공으로 일하면서 고마운 우리 제도를 받들었으면 한다.》

그날 리동룡은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발을 수리하는 일을 그닥 중요치 않게 여겨온 그였다. 하기에 중학교(당시)를 졸업할 때 부모들처럼 신발수리를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였었다.

하지만 평범한 신발수리공가정에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은 리동룡에게 신발수리공이야말로 인민을 위한 긍지롭고 영예로운 직업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그는 신발수리공이 되였다. 피복공장에서 재봉공으로, 수예공으로 일하고있던 그의 두 녀동생들도 신발수리공이 되였다.

총각시절 리동룡이 약혼식을 할 때였다.

한생을 신발수리공으로 일해갈 리동룡의 뜨거운 진정을 읽은 처녀는 그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렇게 신발수리공이 된 그들부부는 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갔다.

그 나날은 그의 가정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 자신들의 량심을 비추어보며 아글타글 애써온 날과 달이였다.

어느때인가 리동룡은 수리할 신발을 맡기려고 찾아온 한 손님이 몹시 불편해하는것을 보았다. 그래서 퇴근길에 수리한 신발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반가와하는 주인의 손에 이끌려 집안에 들어선 그는 집주인이 몸이 불편한 영예군인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아니, 영예군인이구만요?!》

다음날부터 리동룡은 담당지구에 있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이동봉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해마다 바쁜 농사철이 되면 그는 농촌지역의 여러곳에 신발수리이동초소를 만들어놓고 농장원들의 신발수리를 해주군 하였다.

그는 자체의 힘으로 신발수리소를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새것처럼 수리한 신발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는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로 가슴이 부풀군 한다.

지난 수십년세월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그는 아들도 신발수리공으로 내세웠다.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하여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한생을 묵묵히 일해오고있는 리동룡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었다. 그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이다.

오늘도 리동룡과 그 가정은 인민을 위한 보람찬 복무의 길을 걸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조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이번에 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성원으로 세번째로 조국에 왔다.

올 때마다 그러하지만 이번 방문의 나날에도 많은 곳을 돌아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체육문화휴식기지로 웅장하게 일떠서고있는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TV로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국가가 인민을 위해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였다.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뭉쳐 자력갱생의 힘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건설신화와 기적을 창조하며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오고있다.

과학기술전당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면서도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잘 알수 있었다.

웅건장중한 과학기술전당의 외형도 특색있었지만 이런 희한한 곳에서 인민들 누구나 찾아와 마음껏 지식의 탑을 쌓을수 있다니 참으로 부러웠다.

일본에서는 대학 같은데서나 지식을 배울수 있지 조국의 과학기술전당처럼 희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배울수 있는 훌륭한 학습장소는 없다.

모든 조건과 환경, 시설들이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답게 꾸려진 이곳에서 탐구의 나래를 펼쳐가고있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보니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면서도 감동이 컸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궁전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앞날의 체육명수, 과학자들로 구김살없이 자라고있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돈이 없어 꿈과 희망을 꽃피우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지구상의 많은 아이들을 생각하였다.

돈 한푼 안 들이고 재능의 나래를 펼쳐가는 이런 뛰여난 신동, 인재들이 자라나가꾸고 빛내갈 조국의 미래는 참으로 아름답고 환희로울것이다.

나는 륭성번영하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다.

재일동포 배효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민족전통의 우수한 맛을 살려

—전국미꾸라지료리경연 진행—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미꾸라지를 식생활과 질병치료에 널리 리용하여왔다.

미꾸라지에는 사람의 건강에 좋은 단백질과 광물질 등 영양성분들이 조화롭게 들어있다.

특히 미꾸라지의 몸겉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미끈미끈한 점액이 있는데 타우린은 독풀이작용이 센것을 비롯하여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미꾸라지를 리용하여 만든 추어탕은 훌륭한 보양음식으로 잘 알려져있다.

얼마전 평양면옥에서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미꾸라지료리경연이 진행되였다.

료리전시, 기술경연, 시범출연의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료리경연에는 전국각지의 40여개 급양봉사단위가 참가하였다.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경연장에 전시된 무려 수백가지의 미꾸라지료리들이였다.

참관자들로 붐비는 료리경연장에는 미꾸라지완자찜, 미꾸라지랭묵, 미꾸라지약호박찜, 미꾸라지인삼보양찜 등 400여점의 미꾸라지료리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찜만 해도 미꾸라지호박즙찜, 미꾸라지랭찜, 미꾸라지찹쌀완자찜 등이 있었고 미꾸라지완자꼬치구이, 미꾸라지고수구이, 미꾸라지분지향고추장즙구이 등도 있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미꾸라지빵가루튀기, 미꾸라지마른튀기, 미꾸라지호박씨튀기, 미꾸라지완자설란화볶음을 비롯하여 미꾸라지를 갈아 거기에 여러가지 음식감들을 함께 넣어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만든 료리들은 미처 그 가지수를 셀수 없을 정도였다.

지난 시기 추어탕을 비롯한 다양한 미꾸라지료리들을 잘하여 전국에 소문난 원산시사회급양관리소 상동추어탕집에서는 이번 료리경연에 미꾸라지호두볶음, 오미자향미꾸라지구이, 미꾸라지참나무버섯볶음, 미꾸라지장과, 조피향미꾸라지완자탕을 비롯하여 수십가지의 미꾸라지료리를 만들어 내놓았다.

그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상동추어탕집의 신정희소장은 추어탕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들수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대표적인것은 미꾸라지의 꼬리와 대가리를 자르지 않고 통채로 푹 익힌 다음 주걱으로 다진 후 두부, 감자, 풋고추 등을 넣고 끓인 추어탕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미꾸라지를 토막으로 썰어 추어탕을 끓이기도 하는데 두부, 소고기와 함께 쑥갓, 미나리 또는 시래기를 넣으면 맛이 더 구수하다고, 미꾸라지와 호박을 넣어 만든 추어탕은 봄, 가을계절에 보양음식으로 그저그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이번 료리경연에 다양한 미꾸라지료리들을 출품할수 있은것은 미꾸라지료리들을 누구나 좋아하며 즐겨찾는 대중음식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쳤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전국미꾸라지료리경연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료리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음식을 봉사하려는 경연참가자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 철

추 어 탕

미꾸라지분지맛튀기

미꾸라지주름아욱쌈찜

수백종의 새 신발제품 개발

공화국의 신발공업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에 들어와 수백종의 새 제품을 개발하였다.

원산구두공장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100여종에 달하는 새 형태의 구두를 개발생산하였으며 류원신발공장에서는 자체로 만든 접착제용매와 선처리제를 생산에 받아들여 신울편직기에 의한 구두모양의 운동신발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한편 흥남구두공장 로동자들은 가볍고 튕성이 좋은 신발창을 생산하기 위해 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기술을 도입한데 이어 공기주머니식 사방압착기도 설계제작하여 신발의 질을 개선할수 있게 하였다.

평양구두공장에서는 무선심구두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모양이 곱고 신기에도 편리한 구두들을 내놓아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신의주신발공장에서는 재생고무로 신발창을 생산하는 고무탈류기술을 개발하고 재생고무의 당김세기와 늘음률을 높임으로써 재자원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평양신발공장, 강계신발공장, 해주신발공장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이름난 작가 박 지 원

박지원(1737～1805)은 18세기의 작가이며 실학자이다. 자는 중미이고 호는 연암이다.

박지원은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손에서 자라났다.

그는 문학에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으면서 《허생전》, 《량반전》, 《범의 꾸중》, 《말거간전》, 《예덕선생전》 등 우수한 작품들과 여러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당대의 부패타락한 량반들의 생활을 폭로규탄하였으며 근로하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동정하였다.

그는 20대에 벌써 실학사상가로 알려졌으며 홍대용, 박제가, 리덕무 등과 학문적련계를 가지고있었다.

진보적사상경향으로 하여 집권세력들의 배척을 받은 그는 박해를 피하여 산골에 들어가 창작활동을 하였다.

그는 말년에 벼슬길에 올라 한때 벼슬살이도 하였으나 1801년 《신유사옥》을 계기로 고향에 돌아와 생을 마치였다.

그는 홍대용과 함께 땅덩이는 둥글고 천체는 돌고있다는 학설을 주장하였으며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인것으로 보려는 소박한 자연관을 가지고있었다.

또한 그는 불합리한 봉건적토지소유제도를 부분적으로 고칠데 대한 진보적사상을 제기하고 큰 나라를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사대주의관점을 비판하였다.

그의 사상과 문학에 제한성은 있으나 열렬한 애국주의와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지명과 그 유래

광명사우물과 은혜릉

개성시 송악동에는 이전에 광명사라는 사찰이 있던데로부터 유래된 광명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광명사우물과 은혜릉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고려태조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은 룡왕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영안성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하여왔는데 룡녀는 자기 방의 창밖에 은사발로 우물을 파고 그곳을 통하여 서해의 룡궁으로 출입하였다고 한다.

어느날 룡녀는 남편에게 《제가 룡궁에 다녀오겠는데 내가 가는것을 보시지 마시오이다. 약속을 어기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작제건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지만 안해의 말에 부쩍 호기심이 동하여 문밖에서 그가 하는 모양을 몰래 엿보았다.

갑자기 방안에 뽀얀 기운이 서리더니 룡녀는 어린 딸을 데리고 황룡이 되여 오색구름에 싸여 창밖의 우물로 들어갔다.

작제건은 깜짝 놀라 이상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감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

며칠후 집으로 돌아온 안해는 성이 나서 말하였다.

《부부간의 도리가운데서 무엇보다 귀중한것은 신의를 지키는것이옵니다. 제가 상공에게 의지하고 상공이 나를 믿어야 그것이 진정한 부부간이 아니겠소이까. 그런데 상공이 나와의 약속을 어기셨으니 이제는 저와 함께 살수 없나이다.》

그리고는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룡으로 변하여 우물로 들어갔다.

결김에 한 소리겠거니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룡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작제건은 할수없이 그가 남기고 간 신발을 놓고 장사를 지내였다. 그후부터 신발을 놓고 장례를 지낸 그 릉을 은혜릉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자세가 건강에 주는 영향

자세는 사람들의 건강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실례로 손풍금이나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이들과 항상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 어린이들은 앞목을 압박하여 갑상선기능저하증에 걸리기 쉽다.

갑상선기능이 저하되면 인체기초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여 체온과 혈압, 소화기능을 비롯한 인체의 모든 대사활동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기초대사가 낮아지면 면역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우며 더 나아가서는 류마치스성관절염, 심장판막장애를 비롯한 난치성질병을 앓게 된다.

또한 체온이 낮아 겨울에는 늘 추워하며 조금만 추워도 항상 어깨를 들고 다닌데로부터 콩팥하수, 콩팥수신증, 신우방광염을 앓게 된다. 특히 경추증도 초래한다.

반대로 턱을 약간 쳐들고 다니는 자세는 갑상선기능항진과 란시를 초래하게 된다.

협심증환자의 대다수는 왼쪽어깨가 상대적으로 내려가있으며 비뇨기계통의 질병을 앓는 환자들 대다수는 량어깨를 다 들고다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언제나 바른 자세를 가지는것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사기자

마늘의 약효

마늘은 포도알균, 결핵균, 적리균 등 여러가지 병균들에 대한 살균작용을 한다.

살균성분인 피톤시드는 돌림감기비루스를 억누르는 힘이 세며 또한 소화액의 분비와 위장의 기능을 높이고 오줌이 잘 나가게 하는 작용도 한다.

마늘에 들어있는 배당체성분은 고지혈증, 비만증, 고혈압 등 여러가지 병에 좋은 영향을 준다.

본사기자

사화

릉 참 봉 (4)

글 리원주, 그림 리성일

어디서 바스락소리만 나도 등골들이 써늘했다.

순사들이 릉에서 물러가긴 했지만 때때로 순찰하러 오군 한다는것을 고영근도 알고있었다. 그놈들이 나타나는 날에는 만사를 그르친다. 그렇다고 소리없이 정질을 할수도 없는 일이고 불을 끄고 돌을 쪼을수도 없는 노릇이다.

피를 말리는듯 한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닥쳐온 정적은 사람들의 불안을 더 크게 할뿐이다. 이 불안속에서 석수들은 선뜻 일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조는듯 눈을 감고 말없이 앉아있던 고영근이 벌떡 일어서서 석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나가서 파수를 서겠네. 내 비록 늙었으나 왜놈순사 한두놈이야 못 제끼겠나. 죽어도 내가 죽고 잡혀가도 내가 잡혀가겠으니 유사시에 자네들은 숲속으로 피신하게.》

하인이 깜짝 놀라서 로인을 만류했다.

《참봉나으리께서 파수를 서시다니! 소인이 나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여기서 일손을 도와야 한다. 지금은 한시가 새로우니.》

보다못해 늙수그레한 석수가 죄스러운듯 말했다.

《참봉나으리, 고정하십시오. 미물같은 저희들이 제 목숨 하나만을 생각하다나니…》

《아니야. 나는 자네들의 의로운 마음만을 믿네.》

그리고 그는 비각에서 나갔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 하늘에 총총한 뭇별만이 시름많은 지상의 인간처럼 각이한 표정으로 웃고 우는 듯했다. 솔숲에서 우는 바람과 함께 로인의 가슴도 울먹이였다.

나라의 운수가 왜 이다지도 기박한가! 나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해온 파란많은 그의 한생도 기구하기 그지없었다. 제 나라의 반역자를 처단하고 원쑤의 나라에서 감옥살이 20년에 청춘도 포부도 다 스러졌다.

홍안이 백발되여 돌아오니 이미 나라는 망하고 살길잃은 집안도 풍지박산되였다. 이 맺히고맺힌 원한을 무엇으로 풀랴!

오로지 의를 위해 죽자고 스스로 맡아나선 릉참봉 4년에 릉비 하나 못 세운 죄로 그는 어느 하루도 머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를수 없었다. 그런데 천재일우의 기회인 이밤도 덧없이 깊어갈뿐이다. 그의 가슴은 바작바작 죄였다.

그때 그의 시름겨운 생각에 대답을 주듯 비각에서 정소리가 다시 요란히 울리기 시작했다. 앞산에서 쩌렁쩌렁 메아리치는 그 정소리에 그는 이미 터럭만 한 불안도 느끼지 않았다.

이전처럼 두주먹을 꽉 쥐고 보폭을 넓게 내디디며 어깨를 세게 들먹이면서 봉분두리의 공지를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고 빌었다.

《태황제폐하, 령전에 비나이다. 만난을 무릅쓰고 폐하의 릉비를 세우려는 석수들의 충성심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아무쪼록 일을 무사히 끝내도록 보살펴주옵소서. 만약 이 일로 화가 미친다 해도 신 고영근이 혼자 막아나서겠사오니 죄를 받아도 신이 혼자 받게 해주옵소서. 신이 이미 늙어 불구대천의 원쑤 왜적과 총칼을 들고 싸우지는 못하오나 폐하의 릉비를 지키는것으로 겨레의 넋을 지키고저 하는것이오니 이 마음을 굽어살피시고 부디 이밤이 무사히 지새도록 해주옵소서, 폐하! …》

그의 지성에 감천되였는지, 온 마을사람들이 다 잠들고 가슴을 조이던 아닌 밤중의 정소리를 주재소의 왜놈경관들만은 듣지 못했는지 밤은 무사히 지새여갔다.

어느덧 동녘하늘에 해살이 방사형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젖빛안개속에서 우렷이 떠오른 울창한 솔숲도, 솔숲안의 공지도, 공지안에 붕긋이 솟은 봉분도 어제날과 다름이 없건만 비석없이 폐허처럼 버림받았던 비각만은 첫해살과 더불어 면목을 일신했다. 비각 창살로 새여들어온 해살이 대돌우에 굳건히 서있는 비석에 부딪쳐 반사광을 찬연히 뿌렸다.

비각안에 혼자 남은 고영근은 비석에 새겨진 비문을 도포자락으로 닦고닦으며 기쁨에 겨워 웃고 목이 메여 흐느끼고있었다. 이것이 한많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웃음, 마지막눈물로 되였던것이다.

금곡릉에 비석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양주경찰서에서 그날로 경무국에 보고되였고 경무국장은 허둥지둥 총독에게 달려갔다.

보고를 받은 사이또총독은 노발대발했다. 릉에 비를 세웠다는 이 지극히 당연하고 따라서 떠들나위도 없는 이 크지 않은 사건을 그는 왜왕에 대한 불경으로, 도전으로 크게 떠들어댔다.

이 릉이라는 말 한마디에서도 조선민족의 의지와 기개를 보고 신경이 과민해졌는지도 모른다.

고종의 인산날을 계기로 거족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의 만세함성에 덴겁을 먹고 전임자들의 무단통치를 소위 《문화통치》로 바꾼다고 공언한 사이또가 기실 노린것은 《내선일체》, 《일시동인》이라는 표방아래 실시한 지독한 민족동화정책, 민족의식말살책동이였으니 그에게는 조선의 임금이란 국가의 상징이라는 의미에서 생존해있건, 세상을 떠났건 골치아픈 존재였다. 그래서 리태왕의 릉침에 비석조차 세우지 못하게 했던것이다.

총독한테서 심한 추궁을 받은 경무국장의 엄명으로 지체없이 한떼거리의 경관을 실은 자동차가 금곡릉으로 떠나갔다. 몇시간후에 릉비는 또다시 대석에서 떨어져 이전처럼 비각 한구석 땅우에 나딩굴게 되였다.

이때 고영근은 순종에게 릉비를 세웠다는것을 알림과 동시에 이것을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주옵소서 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고 돈화문앞에 부복하고있었다.

그는 바로 거기서 경무국지하감방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후의 그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 망국사에 남은 한토막의 삽화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족의 원쑤를 영원히 잊지 말라는 그날의 절규를 우리는 오늘도 력력히 듣게 되는것이다.

(끝)

옛이야기로 본 속담과 성구

송사는 졌어도 재판은 잘하더라

서로 다투다가 송사를 걸어 판결을 받은 결과 제가 지게 되기는 하였으나 그 재판이 아주 공정하더라고 말했다는 뜻으로 《세상일을 자기의 리해관계에서 떠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여 조금도 억울함이 없어하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옛날에 한 포수가 여우를 보고 총을 쏘았다. 여우는 다리에 총을 맞고 동네 한가운데로 뛰여들어갔다. 그때 개가 달려와서 여우를 물고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갔다.

포수는 그 집에 가서 여우는 자기가 쏘아잡은것이니 달라고 했다. 그러나 개주인은 여우는 우리 개가 물고왔기때문에 자기의것이라고 하면서 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두사람은 여우를 놓고 싸웠다.

한 아이가 이것을 보고 《내가 재판해주겠소.》 하고 나섰다.

그는 《포수는 가죽이 필요해서 여우를 쏜것이고 개는 고기가 필요해서 물고온것인즉 포수는 가죽을 가져가고 개주인은 고기를 가져가시오.》라고 판결해주었다.

개주인은 섭섭했지만 너무나 잘된 판결이라 할수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이만큼 아픕니다

신인작가들을 키우는 한 작가가 어느날 그들의 표현능력을 검열해볼 목적으로 한사람씩 불러내다 손등을 회초리로 때리고는 얼마나 아픈가를 표현해보라고 하였다.

신인작가들은 얼얼한 손등을 쓸어만지며 재간껏 문장을 지어 대답하였으나 작가는 매번 불합격을 주었다.

마지막에 나온 신인작가도 손등을 얻어맞았다.

《얼마나 아픈지 표현하시오. 그러되 간단히!》

《알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회초리를 잠간 볼수 없습니까?》

작가는 회초리를 그에게 주었다. 순간 그 신인작가는 《선생님》의 손등을 힘껏 내리쳤다.

《이만큼 아픕니다.》

작가는 매맞은 손등이 몹시 아팠으나 어쩔수없이 웃으며 말했다.

《아주 좋소. 합격이요!》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